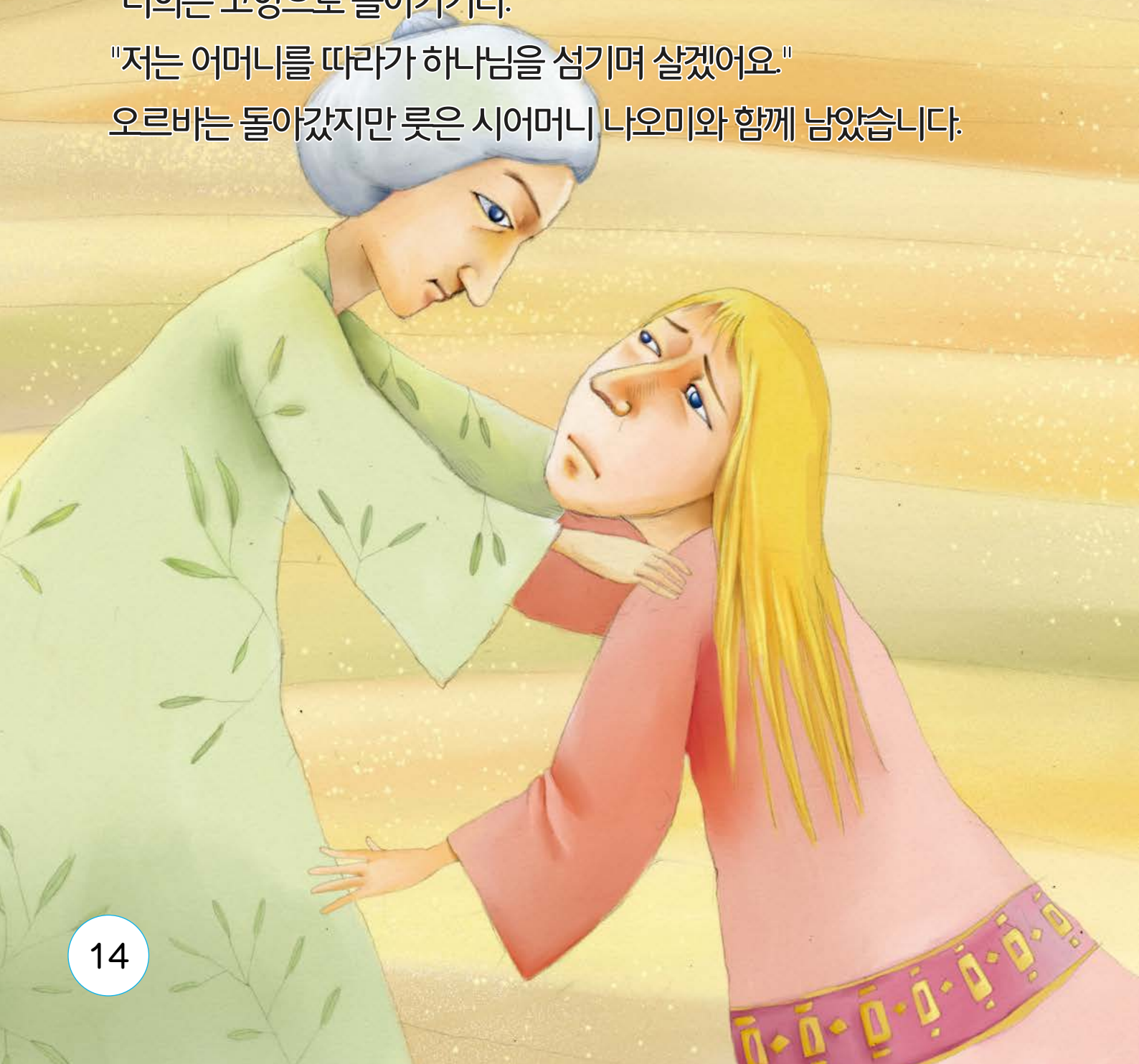


41과 룻의 믿음

나오미는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.
그런데 남편과 아들이 죽자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
마음먹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을 떠났습니다.
길을 가다가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.
"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거라."
"저는 어머니를 따라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어요."
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남았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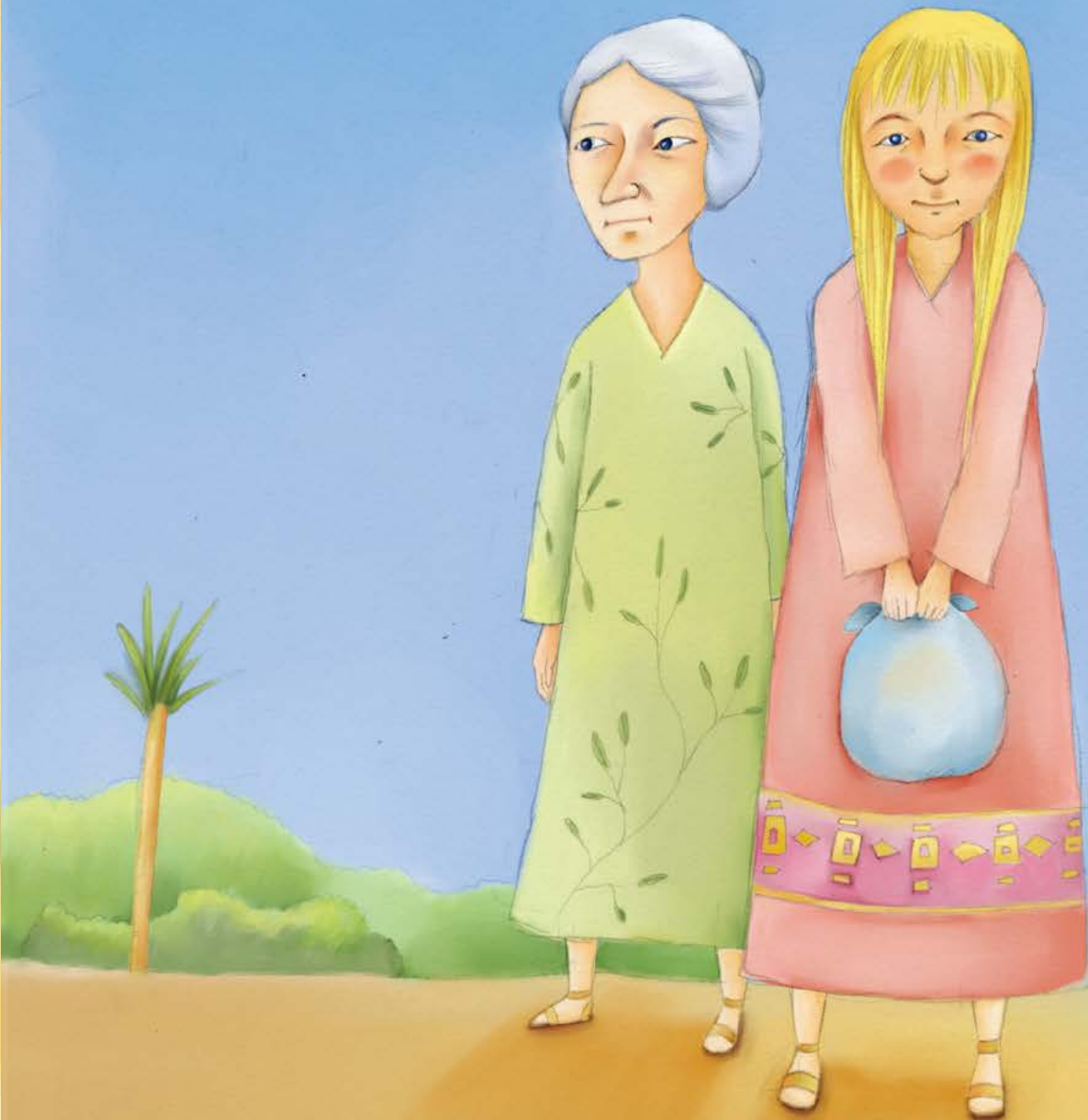


두 사람은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.

나오미와 룯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.

"어머니,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
주워 오겠어요."

룯은 밭에 나가서 추수하고 남은 이삭을
열심히 주워 왔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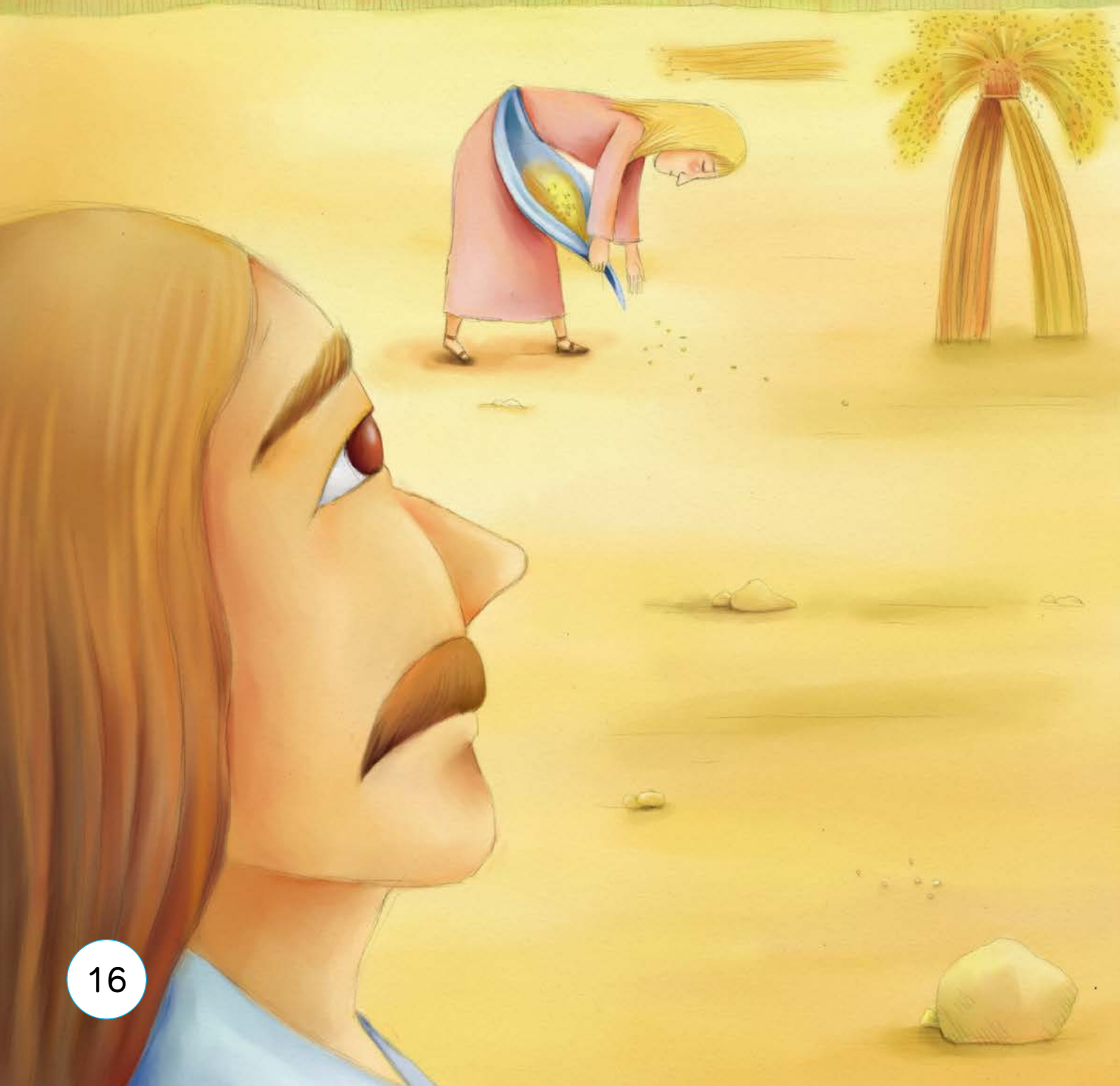


열심히 일하는 룻의 모습을 그 밭주인인 보아스가 보았습니다.

"저 여자는 누구야?"

"예,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같이 온 모압 여자예요.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요."

보아스는 룻에게 친절을 베풀고 더 많은 이삭을 줍도록 도와주었습니다.



"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당신에게 하나님께서
좋은 상을 주실 것이오" 보아스는 룯과 결혼했습니다.
두 사람은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.
오벳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.



암송

암송을 따라 써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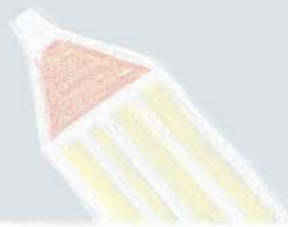
어머니의 백성이 나의
백성이 되고 어머니의
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
되시리니 (룻기 1장 16절)

기도하는 어린이



하나님! 주일 아침마다 교회에 가기가 너무
힘들어요. 제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언제나
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

나의
기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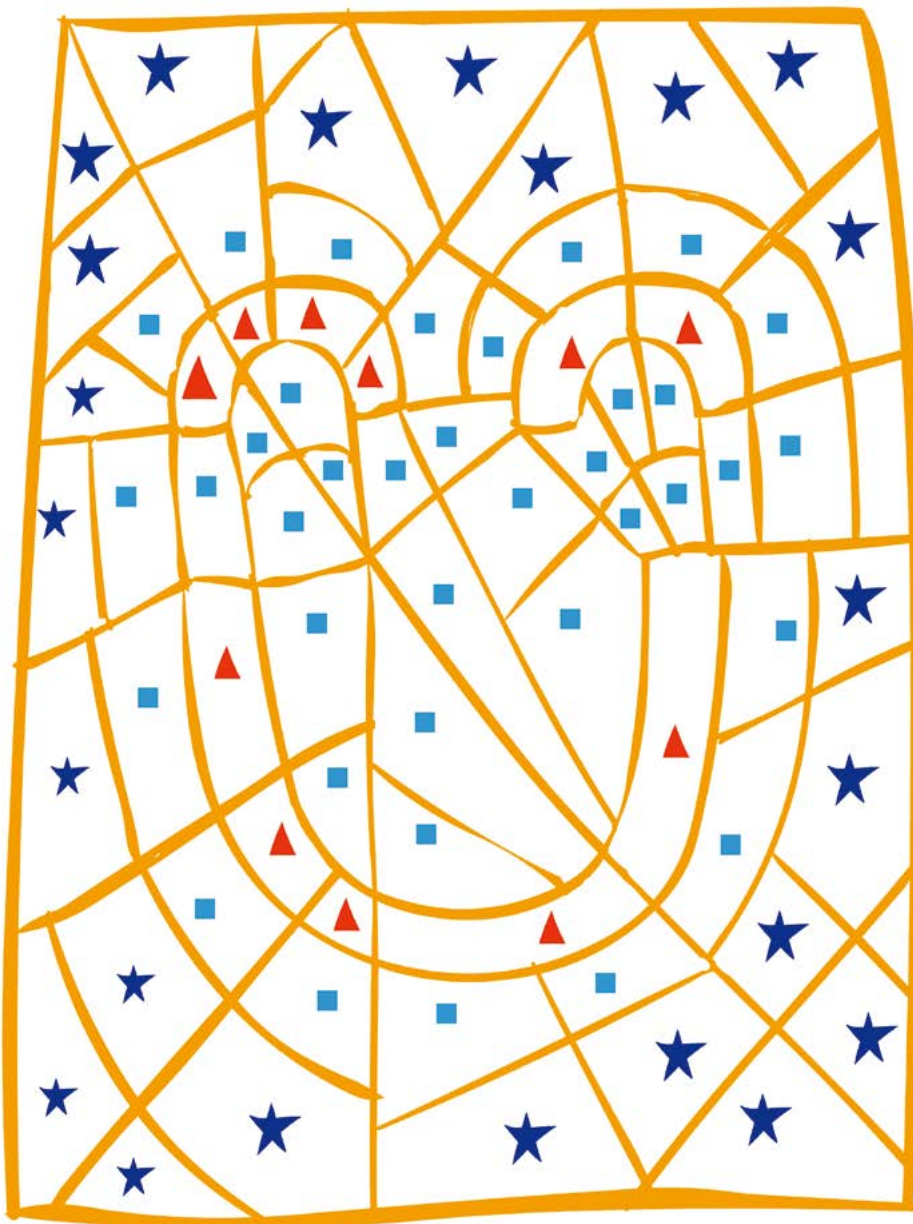


색칠하기

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기에서 선택하세요.
내가 고른 모양이 있는 칸을 모두 색칠해요.

보기

- 컴퓨터 게임을 신나게 한다. ☆ TV를 밤늦게까지 본다.
- △ 머릿들을 열심히 한다.



색칠하기

룻이 이삭을 줍고 있어요 예쁘게 색칠해요.



선생님께

부모님께